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06.23.(화)/ 총 3매 (본문 2매, 붙임 1매)	
자료 제공	• 수산연구본부 수산식품·신산업연구실 - 이정필 실장(051-797-4905)/김은지 전문연구원(051-797-4587)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 데이터·인공지능 기업 5개사와 업무협약 체결

- 기술 협력 및 데이터 활용 바탕 수산 분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본격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6월 23일(화) 영도 본원에서 수산부문 데이터·인공지능 전문기업 5개사인 데이터위버(대표이사 김도훈), 링스업(대표이사 송건호), 아가비타(대표이사 김기석), (주)와이와이소프트(대표이사 양홍현), 타이드풀(대표이사 이준호)과 ‘수산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및 데이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산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수산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 분야는 유통, 물류, 양식, 어업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데이터 표준화와 기술 적용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5개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산 분야 인공지능 기술 공동 개발 및 교류 협력 ▲인공지능 모델 활용을 위한 수산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셋 구축 ▲수산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수산 분야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기획연구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산 정책연구 과정에 민간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 역량을 적극 연계하고, 수산 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물 유통·양식·물류·소비 등 현장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정책연구에 활용하는 한편,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동 연구과제 발굴, 기술 적용 사례 공유,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수산 분야에서도 관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산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책연구와 산업 현장에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산연구본부 수산식품·신산업 연구실 이정필 부연구위원(051-797-4905, feel61@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무협약 사진

